무안군 '안전한 도시' 실현 박차

군민안전보험운영·보장범위 확대
CCTV 관제센터, 범죄 대응 거점
통학로 조성 등하굣길 사고 예방

무안군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무안행복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군민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한 도시 무안'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대응역량 강화, 재해예방 체계 구축, 군민 안전의식 향상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안전 분야에서 57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군민 안전을 단단하게 할 기반도 마련했다.

무안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폭발·화재·붕괴 등 27종목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무안군은 해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과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무안군은 2021년부터 군민 자전거 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안군은 3,94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1,122대의 농기계에 대해 종합보험료를 보조하는 등 군민의 생계 안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안전지대를 넓혀가며 생활밀착형 스마트 치안 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404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건·사고 관련 영상 182건 열람과 수사자료 641건을 제공하는 등 범죄·사고 해결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솔루션을 도입해 지도,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를 연동해 공간·영상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무안군은 2026년까지 427개 마을에 안심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무안군은 33개 부서, 444명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보험에 가입해 현업종사자의 안전 복지 향상에 나선다.

무안군은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환경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33곳을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확충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녹지를 만드는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해 등하굣길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다"며 "일상 속 작은 위험부터 대규모 재난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안전한 도시 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 옥도, 작약꽃으로 물들다

기자수첩

이주열
제2사회부 신안국장

하의도 북동쪽 끝자락 작은 섬 옥도가 들썩거렸다.

'요정이 머무는 치유의 꽃 정원' 옥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작약 꽃 축제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섬 곳곳 22.6ha에서 바람에 일렁이는 작약 꽃은 압권이었다.

전국 최대 규모 작약 군락지답다. 하늘을 이고 바다를 머금으며 피어오른 작약 꽃에 매료될 만하다.

선착장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걸음도 지루하지 않다. 작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야트막한 담 너머로 섬마을의 집들을 기웃거릴 수 있어서다.

눈길 머무는 곳마다 황금작약과 도화비설, 대부귀, 바젤라 등 약 28만 본의 작약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척박한 땅을 너, 나 없이 나서서 일군 결과물로, 주민들의 자랑거리다. 감탕나무 430주는 관람객들의 땀을 식힐 수 있도록 그늘을 내주었다.

축제 첫날, 작약 꽃이 상징하는 '다시 피어나는 사랑'을 뜻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섬에서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두 부부를 위한 리마인드 웨딩을 담아냈다.

소원 바람개비 만들기, 화관 만들기, 작약 부케 제작·판매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동안 제공한 배려도 돋보였다. 퍼플섬의 반월도 큰골 선착장과 옥도선착장 간 여객선을 운항하고 전동카트 등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일제시대 군사 시설이 산재하고 근대기상업무 발상지로서 가치도 높다. 1904년 당시 일본군함들이 무리지어 놀자리마을 바다에 몰려들었다. 실제로 옥도가 일본 해군기지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은 곳곳에 현존하고 있다. 선착장에서 약 300~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러일전쟁 다시 일본 해군이 사용한 큰 우물도 그대로다.

산에서 흘러 내려온 지하수를 항아리에 담아 조그마한 관을 통해 이용한 목욕탕의 형태도 남아있다. 일본 해군기지로 사용되면서 기상관측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물과 돌, 낙지는 단연 으뜸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인근 신의면까지 12㎞에 걸쳐 펼쳐진 갯벌은 천혜의 어장이다.

옥도를 주변으로 하의도와 신의도, 안좌도, 장병도, 우목도, 반월도, 장산도가 둘러쌓았다. 울창한 상록활엽수림 군락지의 기운은 상서롭다.

당산제를 지내던 터는 한낮 더위에도 서늘하다. 100년 된 팽나무를 중심으로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생달나무 등이 빼곡하다.

작약 꽃 정원을 둘러 본 후 옥도 마을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환경은 주민들의 자부심이다.

완도군 "수산공익직불제 2종 신청하세요"

완도군이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업인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도군은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신정 자격은 직전년도(2024년)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며, 어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당해년도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공익직불제 2종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제1회 나주시장배 3쿠션 전국 당구대회 24~25일 열전

나주시당구연맹(회장 이진우)이 오는 24~25일 나주 큐 당구장 등 일원에서 '제1회 나주시장배 3쿠션 전국당구대회'를 연다.

나주시당구연맹 주최·주관, 나주시·시의회·시체육회·전남당구연맹 등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나주 큐, 아방궁, 곤, J당구장 등 4곳에서 3쿠션 개인전 경기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핸디인증 가능(빌리보드·빌리존·큐스코 등 확인 가능자)한 아마추어 당구 동호인이다.

각 부별 넉다운 토너먼트로 본인 핸디 75% 달성시 이기는 방식이다.

예선전부터 4강전까지 30이닝으로 제한하며 이닝제한 경기 후 동률 시 성취율, 승부치기 순으로 정한다. 결승전은 이닝 제한이 없다. 예선전은 4곳 당구장에서 미리 추첨된 대진표대로 토너먼트로 진행해 16강 진출자를 가린다. 본선은 2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진표를 결정한 뒤 토너먼트로 '큐 당구장'에서 연다.

우승 1명 상금 500만원·상패, 준우승 1명 상금 200만원·상패, 공동3위 2명 각각 상금 100만원·상패, 공동5위 4명 각각 훈련보조금 50만원, 공동9위 8명 각각 훈련보조금 20만원씩이 수여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김희숙 제일타카 대표, 진도군에 2500만원 기부

㈜제일타카 김희숙 대표가 최근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액인 2,000만원과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일타카는 목공, 실내장식 현장에서 못이나 금속 핀을 목재나 금속판에 압축공기로 빠르게 박을 때 사용하는 '에어타카'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김희숙 대표의 고향사랑기부 실천에 감사하다"며 "기부금과 장학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과 지역 인재 양성 등 보배섬 진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군,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협의체 회의

신안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0여명의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안군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 △청렴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다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청렴협의체는 고위직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고 실천하는 청렴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산중 교직원, 제자 사랑 장학금 전달

영산중학교 제자사랑장학회가 최근 학교 교무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자 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산중 제자사랑장학회는 지난해부터 모든 교직원이 제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장학회 결성에 뜻을 모으고 출범했다. 장학금은 선생님들이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떼어 1년 이상 적립해 마련했다.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6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됐다.

윤송희 영산중 제자사랑장학회장은 "장학회 이름처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더 많은 학생에게 선생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